

해방공간 대구 지역에서 사용된
중등 음악교과서 『音樂敎本』(大建初級中學校)과
『中等 音樂敎科書』(大邱公立商業中學校)에 대한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Music Textbooks, ‘Music
Textbook’(Daegun Secondary School, Daegu) and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Dae-Sang(An Korean Acronym for the
Daegu Public Commercial Secondary School), Daegu),
Published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이 유 로*

Yooro Lee

초록 본 논문은 해방공간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의 양상 및 특징 고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 두 종의 편저자, 인쇄, 발행, 악보, 구성, 노랫말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편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점, 인쇄용지로 마분지가 사용된 점, 악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는 점, 수록 악보에 앞서 악전이 배치된 점, 수록곡 중 한국곡보다 외국곡의 비중이 큰 점, 다른 교과서의 수록곡 차용 및 짜깁기적 양상을 드러내는 점 등의 공통점이 발견되었으며, 반면 인쇄 방식(등사/옵셋), 발행처(미상(학교 추정)/출판사), 맞춤법 등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종의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는 편저 방식, 인쇄 발행 관련 사항, 사보 수준, 구성 등에서 유사점도 보이지만, 교과서 제작 예산, 편저자의 역량 또는 교육상 주안점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드러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육, 해방공간 음악교과서, 해방공간 비검인정 음악교과서

* Corresponding author, E-mail: eurolee@snu.ac.kr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http://dx.doi.org/10.30775/KMES.49.2.139>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textbooks which were published in an un-authorized way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methods of comparing and analyzing two kinds of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especially in printing, publishing, writing the notes, compiling, and lyrics of the songs. In conclusion, these two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published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are similar in the style of compiling, the condition of printing and publishing, and the level of transcript, etc., but they are also different in their compilers' level of understanding of music, in putting their emphasis on secondary school music education, etc.

Key words: secondary school music educatio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music textbooks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unauthorized music textbooks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I. 들어가면서

본 논문은 『音樂敎本』(大建初級中學校¹⁾)과 『中等 音樂敎科書』(大邱公立商業中學校²⁾)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³⁾ 현재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해방공간⁴⁾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를 조명함으로써 당시의 중등 음악교육과 음악교과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⁵⁾.

해방공간의 중등 음악교육은 현대적 중등 음악교육의 본격적 출발을 위한 모태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간 연구자들이 이 시기 중등 음악교과서를 통하여 당시의 음악교육을 고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다각도에서의 구체적

1) 1946년 9월 20일 대건초급중학교 설립을 인가 받아 개교한 가톨릭계 학교이다. (대건중학교 홈페이지 참고) (이하 '대건')

2) 1923년 대구공립상업학교로 개교하였으며, 해방공간 당시의 교명은 대구공립상업중학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의 교명은 대구상원고등학교이다.(대구상원고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이하 '대상')

3) 『音樂敎本』(大建初級中學校) 자료 입수에 도움을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도서실과, 『中等 音樂敎科書』(大邱公立商業中學校)의 복사본을 제공해주신 소장자 오영식 선생(현 근대서지학회 회장)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中等 音樂敎科書』의 원본은 잠시나마 직접 열람할 수 있었으나, 『音樂敎本』의 원본은 열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필요한 부분들(교과서 크기, 인쇄용지, 색도인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도서실 직원과 소장자의 도움을 받았다. 원본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최선이나, 사정이 여의지 않았다. 연구자의 자료 분석이 기본적으로 사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4) 1945년 8월 15일 해방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해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한다. '해방공간'은 남북의 정치체제가 분리된 시기를 일컫는 '분리공간'의 이전 시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는 검인정제도에 있었다. 검인정 관련 사무는 학무국(1946년 3월 29일 문교부로 개칭(군정법령 제64호)) 내 편수과(편수국)에서 이루어졌다.

접근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가 대개 검인정 교과서 중심, 교육정책과의 관련성 중심, 공식적 교육 중심, 서울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검인정 교과서, 교육정책과의 관련성이 적은 분야, 비공식적 교육, 비서울 지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 비서울 지역의 음악교육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해방공간의 중등 음악교육을 살피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 연구를 위하여 교과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 대구 지역에서 사용된 중등 음악교과서 두 권의 복사본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하나의 비서울 지역에서 사용된 복수(複數)의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 비교가 가능해졌고, 복수의 교과서 비교가, 해당 지역 음악교과서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좀 더 다양하게 마련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⁶⁾

해방 후 곧 한글 음악교과서에 대한 필요를 느낀 음악교육자들이 편찬을 서둘렀고(Korean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the Arts, 2004, p.237~238) 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가 발행되기 시작했지만⁷⁾, 당시 전국적인 종이난, 인쇄난으로 교과서 인쇄 및 발행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1987, p.41~42, p.64 / Korean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the Arts, 2004, p. 238) 검인정 교과서 보급 부족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서울보다 비서울 지역의 상황이 더욱 심각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비서울 지역에서 검인정 음악교과서 보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검인정 교과서가 다종다양하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 비검인정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발견되지 않으나,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의 하나로서 연구 대상이 된 바는 있었다⁸⁾. 그러나 비검인정 음악교과서가 지니는 해방공간에서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이들 교과서의 양상과 특징을 고찰한 연구물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가 존재했으며 또 그 존재에 대한 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본 연구자는 해방공간 비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로부터 야기된 부정적 선입견이 주된 이유는

6)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대구가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거나 또는 대구의 중등 음악교과서들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7)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편 『臨時 中等音樂敎本』(1946년 5월 1일 발행)이 가장 먼저 발행된 검정 중등 음악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8) 김정미의 석사학위논문 '미군정기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1945~1948)'와 김기복의 석사학위논문 '해방공간의 음악교육 연구: 음악교육 정책과 음악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된다⁹⁾.

해방공간은 교과서 검인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시기이다(Heo, 2004, p.235). 해방공간 국정·검인정 교과서 보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에서, 민간 출판사들은 비검인정 교과서들을 펴냈으며, 또 적지 않은 학교에서 당장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엮어 자체적으로 교과서(또는 교과서 용도의 교재)를 내었다(Heo, et al., 2000-2001, p.85). 따라서 해방공간 ‘비검인정’ 교과서에 대하여, 당시 교과서 검인정 제도에 혼란을 주었던 골칫거리, 상업적 이익에 골몰하는 출판사들에 의한 엉터리 짜깁기 교재, 학교 자체적으로 제작한 졸속 짜깁기 임시 교재 등의 인식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이 해방공간 비검인정 교과서는 제대로 된 교과서라 보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낳고, 선입견이 이들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으로 연구를 기피하기에는, 당시의 열악한 사회적 상황과 음악교육계 상황 속에서 이들 교과서의 역할이 분명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견해이다.

해방공간 시기 음악교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 사정이, 교과서 없이는 수업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교혼용어가 조선어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일본어 사용이 금지되었고¹⁰⁾,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일본어 교과서 사용도 학생에게 금지되었으며, 일본인 교사들이 귀국한 후 심각한 교사 부족 사태를 맞아 자격이 부족한 이들이 교사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음악교과의 경우, 음악과 교육과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음악교사 중에는 역량이 부족한 이들이 많았는데, 음악과 교사용 지침서도 없었으며, 교재로 쓸만한 한글로 된 음악 서적도 구하기 어려웠다. 악기나 음악 감상을 위한 장비 등의 지원이 힘든 상황에서 수업은 자연스럽게 가창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한글로 된 음악교과서는 편찬 발행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발행된 다음에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에, 일본어 사용이 금지되어 일본 음악교과서에 있는 가창곡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 속 밑바탕에 존재하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 우리말과 글을 모르거나 서툰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총체적인 난국이라 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9) 전진성은 ‘교과서 검·인정에 대하여’(1948년 12월호 『새교육』(1권 제3호). 허재영의 ‘과도기(1945~1955)의 국어과 교과서’ p.72~73으로부터 재인용)에서 해방공간 시기의 교과서 검·인정 상황에 대하여 말하면서, “검·인정 신청 교과서 총수(334건), 검·인정된 교과서 수(174건), 불 검·인정된 교과서 수(161건)”이라 밝히고 있다.

당시 교과서가 시급히 다량 요청되는 상황이었어서 검·인정 기준이 엄격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검·인정되지 못한 교과서가 많다는 것은, 해방공간 당시 사용된 교과서 가운데 조잡한 것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선입견이 존재해온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10) 미군정령 일반명령 제4호(1945. 9. 17), 법령 제6호(1945. 9. 29)

교과서는 너무도 절실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검인정 교과서 보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여러모로 문제점을 지닌 비검인정 교과서라 하더라도 수업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졌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 시기,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가 어느 정도로 다종다양하게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¹¹⁾. 그러나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가 다종다양하게 존재했을 가능성과,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검인정 교과서가 공급되지 못한 교육현장에서 이들 교과서가 없어선 안 될 존재였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만으로는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육의 전체적·종합적 조망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보다 온전한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육 연구를 위하여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대구 지역에서 사용된 두 종류의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해방공간의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의 양상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목표를 둔다.

분석에는 주로 비교 분석적 방법이 사용된다. 서지학적 접근과 역사연구 방법 등이 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II장에서 두 교과서의 양상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들이 나타나는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주요 비교 분석 대상은 두 교과서의 편저자, 인쇄, 발행, 악보, 구성, 노랫말이다.

편저자에 대하여서는 편저자명 명시 여부와 관련하여 살핀다.

교과서의 인쇄, 발행에 대하여서는 주로 외적체제와 관련하여 살핀다. 해방공간 음악 교과서의 외적체제는 그간 교과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내적체제에 비하여 분석 대상으로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공간의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교과서의 외적체제가 내적체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예컨대 종이난으로 인쇄 용지가 부족하여 교과서의 크기가 작아지고 글자가 작아지며 쪽수가 제한될 수 있어, 교과서 내용도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적체제와 관련된 정보들이 내적체제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쇄일, 인쇄처, 인쇄 용지, 인쇄 방식, 발행일, 발행처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악보, 구성, 노랫말 분석에 있어서는 『臨時中等音樂敎本』¹²⁾과의 비교 분석도 함께

11) 음악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각주 9)의 전진성의 글에서의 통계를 참고하면서, 애초에 검·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을 교과서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하여 보면,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는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알기 어렵다.

12) 『臨時中等音樂敎本』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 후 첫 검정 중등 음악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이 교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音樂敎本』(대진)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비교를 통하여 두 교과서의 수록곡 간 중복곡이 각 교과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그 중복곡이 대부분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곡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수록악보 또한 『臨時中等音樂敎本』 악보의 모사(模寫)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악보와 구성, 노랫말 분석에 있어서 『臨時中等音樂敎本』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악보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보 상태, 사보자, 악보 모사 등을 검토한다. 『臨時中等音樂敎本』 수록 악보 모사 양상, 모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사(誤寫) 양상, 교과서 간 영향 관계 등을 살핀다.

구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악전 유무 여부와 배치 및 비중, 악전의 내용, 가창곡의 비중, 『臨時中等音樂敎本』 수록 가창곡과의 중복곡, 타 교과서의 차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노랫말에 대한 분석에서는 표기법(한글맞춤법)과 두 교과서의 노랫말 간 차이, 『臨時中等音樂敎本』 노랫말과의 비교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946년 한글맞춤법 제3차 수정조항 적용 여부와 이를 통한 발행연도 추정, 노랫말 비교를 통한 교과서 간 영향 관계 등을 살핀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音樂敎本』(대진)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를 비검인정 교과서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두 교과서를 비검인정이라고 보는 근거로는 첫째, 교과서 내에 검인정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둘째, 특정 학교의 교가가 수록되어 있는 점, 셋째, 판권지의 부재(원래 없었다면)를 들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자가 수집한 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와 차이를 보이는 면면이다. 즉 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는 검인정필이 확인되며, 특정 학교의 교가가 수록되지 않았고, 망실 또는 누락된 경우가 있지만 판권지가 작성되어 있다.

현재의 연구상황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에 대하여 검인정/비검인정 판단에 있어서의 명확한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비검인정이라 단정하기 위해서는 검인정/비검인정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 기준이 마련되는 데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검인정필 표기가 확실히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인정 교과서로서 판단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인정/비검인정 판단이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시기의 교과서들이 발행 후 현재까지 70년 이상 보존되는

과서는 서울지역 중등학교 음악교사 30여 명이 모여 뜻을 모아 편찬한 교과서였으며, 교과서가 절실한 상황에서 편여진 터라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출판 발행된 교과서들에서 『臨時中等音樂敎本』과의 다양한 유사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안, 시간 경과로 인한 손상 외에도 보존 환경에 따라 부분적 누락, 망실, 훼손된 경우가 많은데,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의 검인정필 명시 방법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보존 상태에 따라 검인정필 확인 및 추정이 어려운 점¹³⁾, 둘째, 검인정/비검인정 판단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해방공간 시기 발행된 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의 목록 또는 발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이 두 교과서를 비검인정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¹⁴⁾, ‘비검인정’보다는 ‘비검인정 추정’이 정확한 표현인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두 교과서에 대하여서는, 앞서 서술한 바대로 이 비검인정 교과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비검인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함을 밝힌다.

아쉽게도 두 권의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우 부분적 고찰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두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양상과 특징이, 해방공간 비서울 지역의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 전반에 나타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차후에 이루어질 해방공간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위한 자그마한 초석을 놓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II. 교과서 비교 검토

1. 서지사항

서지사항은 판권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¹⁵⁾.

두 교과서에서 공히 판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13) 이 시기 중등음악교과서들을 살펴보면, 검인정 관련 내용이 인쇄되는 면이 일정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과서에 따라 판권지, 앞표지, 뒷표지, 목차 쪽 등 다양한 곳에 인쇄되어 있다.

14) 이러한 여건은 검인정/비검인정 교과서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도, 또 이 두 가지를 비교 고찰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15) 판권지 유무 여부와 검인정 또는 비검인정 교과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즉 비검인정 교과서에는 판권지가 없거나, 검인정 교과서에는 판권지가 있거나 할만한 근거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音樂敎本』(대진)의 경우, 애초부터 작성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작성되었으나 망실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명이 표지에 명기되어 있는데, 학교 자체 제작 교과서의 경우 학교 내 교사와 학생들이 주 사용자이므로, 교과서 관련 정보에 대하여 사용자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어 판권지 작성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생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경우도, 애초부터 작성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작성되었으나 망실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音樂敎本』(대진)과는 달리 출판사¹⁶⁾에서 발행된 사실이 표지에 명기되어 있다. 출판사 발행 도서는 판권지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된 판권지의 망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특정 학교에서만 사용되는 비검인정 교과서라는 이유로, 출판사에서 애초에 판권지 작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판권지가 발견되지 않는 탓에, 아쉽게도 판권지를 토대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서지사항은 없으며, 이 때문에 본고에서의 서지사항과 관련된 논의들은 본 연구자의 교과서 고찰 결과를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힌다.

1) 편저자

두 교과서에서 공히 명확한 편저자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音樂敎本』(대진)의 경우, 편저자명이 발견되지 않으며 확인하기도 어렵다.¹⁷⁾ 표지에 학교 이름만 명기되어 있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경우는, 편저자명은 물론, 교과서가 사용된 학교명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다. 대구공립상업중학교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교과서 수록곡 가운데 〈대상 교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¹⁸⁾

16) 大邱 文藝出版社

17) 재직 음악교사의 편저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 대진중학교에 1946년 개교 후 해방공간 시기에 재직하였던 음악교사에 대한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재직 교사들의 담당 과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18) 〈大商 校歌〉는 이종림(李宗林) 작사, 김상환(金尙煥) 작곡으로 만들어졌다. 작사자 이종림이 초대 한국인 교장(1945~1953)이므로(대구상원고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조심스럽게 김상환이 음악교사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가 교과서를 편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였다. 이에 대구상원고등학교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 김상환이 해방공간 당시 대구공립상업중학교에서 재직한 교사였음은 확인하였으나, 김상환의 담당 교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음악교사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2) 인쇄

(1) 인쇄 방식

두 교과서의 인쇄 방식에 차이가 있다.

『音樂敎本』(대건)에는 옵셋 인쇄 방식이 사용되었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에는 등사 인쇄 방식이 사용되었다¹⁹⁾. 등사 인쇄에 의한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글씨와 악보 상태는, 옵셋 인쇄에 의한 『音樂敎本』(대건)에 비하여 선명하지 못하다.

(2) 인쇄처

두 교과서에서 공히 인쇄처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인쇄용지

『音樂敎本』(대건)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공히 마분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이하게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표지가 문서 서식 용지에 인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용도의 서식 용지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발행

(1) 발행일

두 교과서의 정확한 발행일을 알기 어렵다.

『音樂敎本』(대건)의 경우에는, 머리말 작성일이 명시되어 있어 이것이 발행일 추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발행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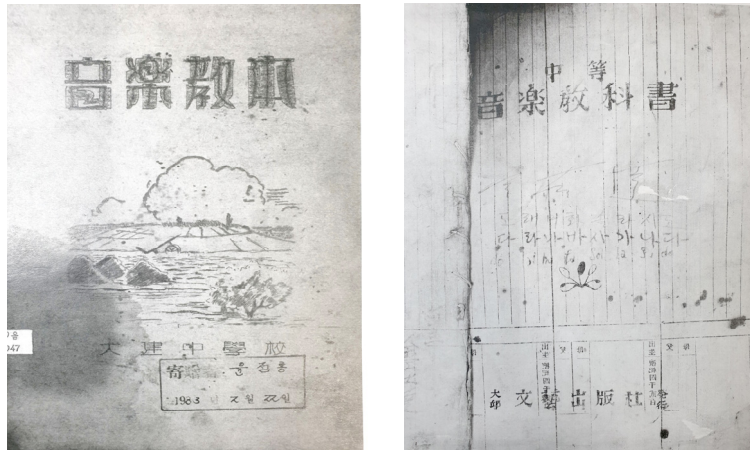
『音樂敎本』(대건)의 경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반면에, 『中等 音樂敎科書』(대상)는 표지에 ‘대구 문예출판사(大邱 文藝出版社) 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9) 인쇄 방식 확인에 <책과 인쇄 박물관>(춘천시 소재) 전용태 관장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4) 기타

(1) 표지 그림



[Figure 1] Book-covers of 『Music textbook』(Daegun second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Daegu public commercial secondary school)

두 교과서에서 공히 표지 그림이 발견된다.

『音樂敎本』(대건)의 표지 그림에는 논밭, 구름 낀 하늘, 나무, 시내 등이 어우러진 전원 풍경이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단도(1도) 인쇄이므로 무채색 외의 색감을 느끼기 어렵다(Pak, 1982, p.57).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표지 그림에는 작은 풀 한 포기 또는 꽃 한 송이가 역시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단도 인쇄이다.

표지에 간단하나마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은 교과서로서의 구색을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해방공간 초기 중등 음악교과서의 표지는 거의 단도 인쇄로서, 단순한 디자인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단순함을 벗어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교과서 크기

『音樂敎本』(대건)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는 공히 국판 교과서²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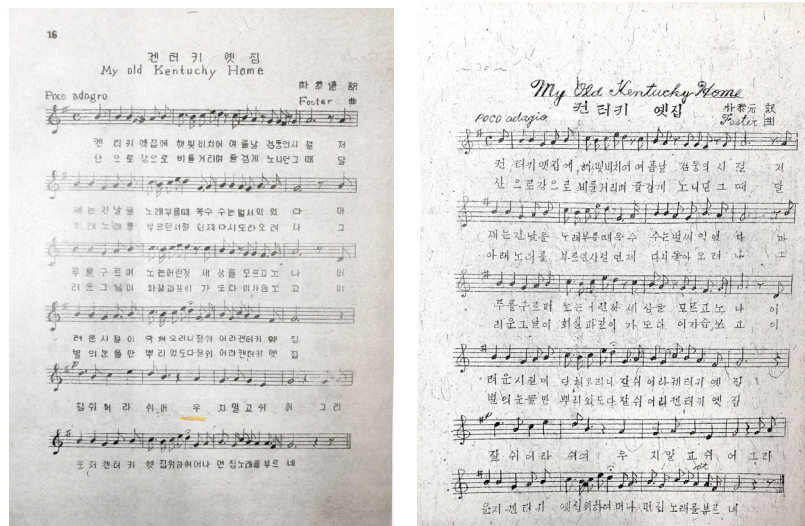
해방공간 시기 교과서 크기가 작은 이유는, 주로 당시 만연했던 인쇄용지란 그리고 교과서 제작 비용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당시 국판 교과서가 많았고, 더 작은 교과서들도 있었다²¹⁾.

20) 용지 크기 148×210 mm

<Table 1> Bibliographic data of 『Music textbook』(Daegun second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Daegu public commercial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
1. Existence of copyright certificate		none	none
2. Written name of the author/compiler		none	none
3. Written name of the school		yes	none
4. Printing	Printing method	Offset printing	Mimeograph copying
	Printing company's name	unknown	unknown
	Printed paper	Pulp paper	Pulp paper
5. Publish	Published date	unknown(estimated to have been published in 1947)	unknown(estimated to have been published prior to the government formation)
	Publishing office	unknown(estimated to have been published by the school)	MoonYeh publishing company, Daegu
6. Existence of the picture on book-cover		○	○
7. Size of the book		148 × 210 mm	148 × 210 mm

2. 악보



[Figure 2] <My old Kentucky home> in the 『Music textbook』(Daegun secondary school, left) and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Daegu Public commercial secondary school)

21) 계정식의 『중등노래교본』(교회음악연구회 발행)의 경우, 약 100×170 mm 정도에 불과하다.

두 교과서 공히 사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두 교과서의 악보에서 사보상의 오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음악가명과 음악용어의 오기, 악보 오사(誤寫) 등 양상도 다양하다.

또한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 악보와의 상당한 유사성이 확인되는데, 글씨체도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두 교과서는 공히 악전과 가창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교과서에서 악전은 교과서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며, 악전 내용이 끝난 다음에 가창곡 악보들이 배치되어 있다. 악전과 가창곡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기악, 감상, 창작 영역과 관련된 수록 악보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창영역 위주의 구성이다.

● 『音樂敎本』(대건)

목차 다음 쪽부터 '애국가'(p. 9) 이전까지, p. 4를 제외하고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다. p. 4는 '樂譜'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며, (一)音名, (二)音符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 내에 악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하건대, p. 4부터 '애국가'가 나오기 전 즉, p. 8까지 악전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 4의 악전 내용과, 수록곡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수록곡 정보에 『臨時中等音樂敎本』과의 비교 내용을 함께 나타내었다.

※ 수록곡에 따라 시(詩), 사(詞), 역(譯), 작사(作詞), 작가(作歌), 요(謠) 등 노랫말 또는 노랫말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 있다. 이들을 '노랫말' 항목으로 묶었다.

※ 곡(曲), 작곡(作曲), 민요(民謠), Song 등의 표현들을 '곡' 항목으로 묶었다.

※ 수록곡 정보는 곡목 / 노랫말 / 곡 / 『臨時中等音樂敎本』 수록 여부 / 비교 순으로 나타내었다.

樂譜

(一) 音名

(二) 音符

(이후 원문 누락)

- (1) 愛國歌 / 없음 / 安益泰 / 수록 / 3절 없음
- (2) 아침해 고을시고 / 林學洙 詩 / 金聖泰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3) 黎明의 노래 / 華岩 詩 / 李建雨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4) 建國의 노래 / 金泰午 詞 / 羅運榮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5) 獨立行進曲 / 朴泰遠 詩 / 金聖泰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6) 農軍의 노래 / 呂尙玄 詩 / 李興烈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7) 켄터키엣집 / 朴泰遠 譯 / Foster / 수록 / 『臨時中等音樂敎本』(1946)에는 朴泰元 譯
- (8) 물새 발자욱 / 尹福鎭 詩 / 朴泰俊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9) 微風 / 李殷相 詩 / 朴泰俊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0) 鳳仙花 / 金亨俊 詩 / 洪蘭波 / 수록 (제목:봉숭아) / 작곡자명 오기. '파'의 한자는 '坡'.
- (11) 成佛寺의 밤 / 李殷相 詩 / 洪蘭波 / 수록 / 작곡자명 오기. '파'의 한자는 '坡'.
- (12) 고향생각 / 洪永厚 詩 / Mary E. B. Doma / 수록 / 1)『臨時中等音樂敎本』에는 홍영후 작가, Mary E. B. Dona 작곡. 2) Doma 오기 -> Dona
- (13) 麻衣太子 / 李殷相 詩 / 安基永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4) 歡喜의 頌歌 / 華岩 譯 / Beethoven / 수록 / 작곡자명 오기 Beethoven.
- (15) 피콜새 / 金仁湜 作詞 / 없음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6) 旅愁 / 鞠正孝 詞 / T. F. Ordway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7) 菩提樹 / 없음 / Schubert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8) 뼈꾸기 / 華岩 譯 / Slovakian 民謠 / 수록 / Slovakian은 Slovakian의 오기
- (19) 즐거운 나의 집 / 金在富 譯 / Bishop / 수록 / 작곡자의 한자명 오기. 金在寅이 맞음.
- (20) 보금자리 / 없음 / Beethoven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歡喜의 頌歌'와 같은 곡조(9번 교향곡 '합창' 중). G장조. '歡喜의 頌歌'는 A장조이나 이것은 G장조.
- (21) 진달래 피는 나라 / 金起林 詩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 (22) 로렐(렐)라이 / 고순덕(한글명 표기) 譯 / F. Silcher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3) 金剛山에 살으리랏다 / 李殷相 詩 / 洪蘭波 / 수록 / 1)본제목이 '金剛에 살으리랏다'인데, '金剛'에 '山'을 첨가함. 2)작곡자명 오기. '파'의 한자는 '坡'.
- (24) 봄처녀 / 李殷相 詩 / 洪蘭波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작곡자명 오기. '파'의 한자는 '坡'.
- (25) 바다로 오라 / 없음 / Napolitan Folk Song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 (26) 思友 / 李殷相 詩 / 朴泰俊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7) 자장가 / 洪淳赫 譯 / Schubert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28) 산타루치아 / 없음 / Italian 民謠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29) 오-소래 미오 / 없음 / E. di Capun / 수록 / 작곡자명 오기. E. di Capua가 맞음
 (30) 월계꽃 / 尹基誠 作歌 / Schubert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31) 자장가 / 없음 / W. A. Mozart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32) 도라오라 쏘렌토에 / 없음 / E. de Curtis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목차에 있는 제목에는 ‘쏘렌토에’, 수록 악보에는 ‘쏘렌토로’
 (33) 목동아 / 없음 / 없음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34) 마리아 마리 / 없음 / 없음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35) 세레나-데 / 없음 / Toselli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36) 꿈속의 고향 / Dootak / 수록 / 작곡자명 오기. Dvorak이 맞음.
 (37) 저 먼 산타 루치아 / 金水鄉(卿)? / Mario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金水 다음에 ‘향(卿)’과 ‘경(卿)’의 혼합형태로 씌어 있음. ‘향(卿)’이 맞음.
 (38) 필렌드의 森林 / 金水鄉(卿)? / 필렌드 民謠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金水 다음에 ‘향(卿)’과 ‘경(卿)’의 혼합형태로 씌어 있음. ‘향(卿)’이 맞음.
 (39) 봄노래 / 李殷相 謠 / 李興烈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40) 고향의 봄 / 李元壽 謠 / 洪蘭波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작곡자명 오기. ‘파’의 한자는 ‘坡’.
 (41) 무궁화 피고 피고 / 尹福鎭 謠 / 朴泰俊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42) 종소리 / 없음 / 없음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 『中等 音樂教科書』(대상)

목차 다음 쪽 즉, p. 3부터 p. 18까지 악전이며, p. 19부터 교과서 끝까지 수록곡 악보가 이어진다.

악전 내용과, 수록곡 정보는 다음과 같다.

[樂 典]

第 1章 總論

第 2章 音의 長短

1. 音符

2. 單純音符

3. 附點音符

4. 休止符
5. 單純休止符
6. 附点休止符其他

第 3章 音의 高低

1. 譜表
2. 大譜表와 連合譜表
3. 音符記号
4. 變化記号

第 4章 音의 強弱

1. 拍子와 強弱
2. 拍子種類
3. 強弱記号

第 5章 音程

1. 音程은 大体 무엇인가?
2. 音程의 種類

第 6章 音階

1. 長音階
2. 短音階

第 7章 各種記号

1. 樂曲 全体를 支配하는 速度 樂語
2. 一部分의 速度 樂語
3. 其他 記号
4. 指揮法

第 8章 樂曲形式解説

=====

※ 곡목 / 노랫말 / 곡 / 『臨時中等音樂敎本』 수록 여부 / 비교 순

- (1) 도라오라소렌토로 / D. Curtis / 없음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수록악보 제목은 '도라오라 쏘렌토로'
- (2) 大商校歌 / 李宗林 詩 / 金尙煥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교 내용 없음
- (3) 應援歌 / 尹啓鉉 詩 / 金尙煥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교 내용 없음
- (4) 悲歌 / 없음 / J. Massenet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작곡자명 오기. Massenet

- (5) 愛國歌 / 없음 / 安益泰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6) 凱旋 / 金在寅 譯 / Händel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7) 歡喜의 頌歌 / 華岩 譯 / Beethoven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8) 피콜새 / 金仁湜 作詞 / 없음 / 수록 / 첫 음부터 오사
- (9) 컨터키 옛집 / 朴泰元 譯 / Foster / 수록/ 수록악보 제목도 ‘컨터키 옛집’
- (10) 로렐라이 / 고순덕(한글명) 譯詞 / F. Silcher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1) 金剛에 살으리랏다 / 李殷相 作 / 洪蘭波 / 수록 / 작곡자명 오기. ‘파’의 한자는 ‘坡’
- (12) 小夜歌 / 없음 / F. Schubert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 (13) 니나의 死 / 없음 / G. Pergolesi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 (14) 黎明의 노래 / 華岩 作詞 / 李建雨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5) 微風 / 李殷相 詩 / 朴泰俊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6) 그리운 江南 / 金石松 作詞 / 安基永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7) 스텐카라진 / 華岩 譯詞 / 露西亞 民謠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8) 월계꽃 / 尹基誠 作歌 / Schubert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19) 빠꾸기 / 華岩 譯詞 / Slovakian Folk Song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0) 旅愁 / 鞠正孝 歌詞 / J. F(P?). Ordway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1) 菩提樹 / 南宮堯高 譯歌 / Schubert / 수록 / 역사자명 오기. 역사자는 남궁요
설이며, ‘설’은 ‘蒿’이 맞음.
- (22) 즐거운 나의집 / 金在寅 譯詞 / Bishop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3) 불가의 배스노래 / 韓甲洙 譯詞 / 露西亞 民謠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4) 싘타루치아 / 없음 / Italian Folk Song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5) 오, 나의 태양 / 없음 / E. di Capua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6) 한 떨기 장미꽃 / 李殷相 譯詞 / 英國 民謠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7) 思友 / 李殷相 作詞 / 朴泰俊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28) 나의 동무 / 없음 / Wrighton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 (29) 잘 있거라 내 고향 / 없음 / 독일 民謠 /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비고 내용 없음
- (30) 麻衣太子 / 李殷相 作詞 / 安基永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31) 아기 재우는 노래 / 없음 / 없음 / 수록 / 브람스의 ‘자장가’
- (32) 자장가 / 洪淳赫 譯 / Schubert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33) 쿠쿠-윌쓰 / 韓甲洙 譯歌 / J. E. Jonasson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34) 봉숭아 / 金亨俊 作詞 / 洪蘭坡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 (35) 成佛寺의 밤 / 李殷相 作詞 / 洪蘭坡 / 수록 / 비고 내용 없음

4. 노랫말

우선, 두 교과서 간 한글맞춤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音樂敎本』(대진)의 노랫말에는, 1946년의 한글맞춤법 제3차 수정 내용인 ‘사이스’ 표기 폐지가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표기법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의미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노랫말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다른 의미의 노랫말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III. 논 의

1. 편저자

두 교과서에 공히 편저자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것이 비검인정 교과서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현재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인정이 확인된 중등 음악교과서 가운데 편저자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비검인정으로 추정되는 교과서 가운데 편저자명이 발견되는 것도, 발견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편저자명 명시 여부가 검인정/비검인정의 판단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교과서에 편저자명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다.

첫째, 특정 학교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과서이고 또 그 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편저자를 알고 있는 경우 편저자명을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임시적 교재로만 여겼을 경우 굳이 명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저작권이 보호받는 시기는 아니었으나, ‘편저’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다른 교과서를 지나치게 차용, 짜깁기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넷째, 검인정 즉 합법적 교과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저자명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音樂敎本』(대진)에서도,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에서도, 편저자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는 출판사 발행임에도 불구하고 편저자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

앞서 II장에서 밝힌 바대로, 두 교과서의 편저자가 당시의 재직 음악과 교사(또는 다른 교과 교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으나 확인이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편저자가 당시의 재직 교사인지, 출판사 편집부인지, 또는 학교 외부 인사인지 알기

어렵다.

편저자에 대한 정보는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 교과서의 편저 의도, 편저 상의 원칙, 선곡의 기준, 교과서 내용 분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音樂敎本』(대진)의 경우 머리말이 있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경우에는 편저자의 글은 찾아볼 수 없어 정보를 얻기 힘들다.

2. 인쇄 및 발행

1) 인쇄

인쇄방식과 인쇄치는 깊은 관련을 지닌다.

II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音樂敎本』(대진중학교)에는 옅색 인쇄 방식이 사용되었고, 『中等 音樂敎科書』(대상)는 등사 인쇄 방식이 사용되었다.²²⁾ 옅색 인쇄는 일반적으로 옅색 인쇄 기구를 갖춘 전문인쇄소에서 가능하므로 『音樂敎本』(대진)의 인쇄처는 대구 지역의 전문인쇄소로 추정할 수 있으며, 등사 인쇄는 전문인쇄소가 아니어도 가능하므로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인쇄처는 전문인쇄소일 수도, 출판사일 수도, 학교일 수도, 또는 다른 곳일 수도 있다.

해방공간 당시, 학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등사 인쇄 기구를 갖춘 곳들이 있었고, 이들 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재들을 수시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등사 인쇄 기구에는 등사기, 등사원지, 잉크, 롤러, 철판, 철팔 등이 포함되는데, 이 몇 가지 기구만 갖추면 특별한 기술을 배우지 않은 이라도 인쇄가 가능하다. 반면 옅색 인쇄는, 옅색 인쇄를 위한 기계 장비가 갖추어져야 가능하며, 물론 해방공간 당시의 옅색 인쇄 방식이 현재에 비하여 상당히 단순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기계를 조작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을 배운 이라야 인쇄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인쇄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옅색 인쇄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인쇄 방식에 따라 결과물의 선명도에 차이가 있다. 옅색 인쇄가 등사 인쇄보다 선명한 결과물을 낸다고 볼 수 있다. 해방공간 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들 중에서 등사

22) 〈책과 인쇄 박물관〉의 전용태 관장에 따르면, 해방공간 옅색 인쇄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인쇄물에서 발견되는 망점이다. 『音樂敎本』(대진)에서 망점이 발견되므로 옅색 인쇄라 판단하였다. 한편, 등사 인쇄는, 필경사가 철판 위에 등사원지를 놓고 철팔로 글씨를 긁은 다음, 등사원지 위에 잉크를 바르면, 글씨 사이로 잉크가 통과하여 종이에 인쇄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필경사가 철팔로 글씨를 긁는 힘이 균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씨의 선이 뚫뚫 끊어진 형태나 선의 굵기가 고르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악보의 예를 들면, 음표의 머리, 기둥, 꼬리가 선명하게 인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식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인쇄본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비검인정 교과서 (또는 비검인정으로 추정되는 교과서들) 가운데 등사 인쇄본이 발견되는데, 그 주요 이유가 인쇄 결과의 선명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즉, 『中等 音樂敎科書』(대상)는 당시 출판사를 통하여 발행된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 가운데 등사 인쇄된 경우, 그리고 『音樂敎本』(대건)은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 가운데 옴셋 인쇄된 경우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하여 단순히 비검인정이기 때문에 등사인쇄가 사용되었다거나, 비검인정 교과서는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인쇄 방식은, 교과서 인쇄 예산에 따라 선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교과서의 인쇄용지로 사용된 마분지는 해방공간 시기 교과서 인쇄용지로 많이 사용되었다(Pak, 1982, p.57). 당시 마분지는 종이 표면이 고르지 않아 거칠고, 깨끗한 흰색도 아니었으며, 오염에 약하였기 때문에, 종이 질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똥지’라 불리었다. 교과서 용지로 적합하지 않으나, 인쇄용지난이 심각했던 당시 상황에서 공급 가능했던 인쇄용지였던 까닭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종이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존 중에 누락, 훼손, 오염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표지의 경우, 특이하게 문서 서식 용지에 인쇄된 것을 볼 수 있다. 출생날짜와 부모의 성명을 적는 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사용되었던 문서 서식 용지일 가능성이 있다. 무슨 이유로 이 용지에 표지가 인쇄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리고 표지만 등사 인쇄에 의한 것이 아닌데, 이 또한 특이점이라 하겠다.²³⁾

2) 발행

두 교과서의 정확한 발행일은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音樂敎本』(대건)의 머리말 작성일이 1947년 10월 24일이기 때문에, 1947년 내에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해방공간 다른 중등 음악교과서들의 경우, 머리말 작성일과 발행일이 몇 달씩 떨어져 있는 경우는 드물다. 머리말을 편저 작업 초반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저를 마치고 인쇄 전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머리말 작성일이 1947년 10월 24일이므로, 1947년 내 발행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 〈책과 인쇄 박물관〉 전용태 관장은, 표지는 활자 인쇄 또는 옴셋 인쇄로 보인다고 확인해주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표지 인쇄 상태가 좋지 않고, 본 연구자가 가진 자료가 복사본이라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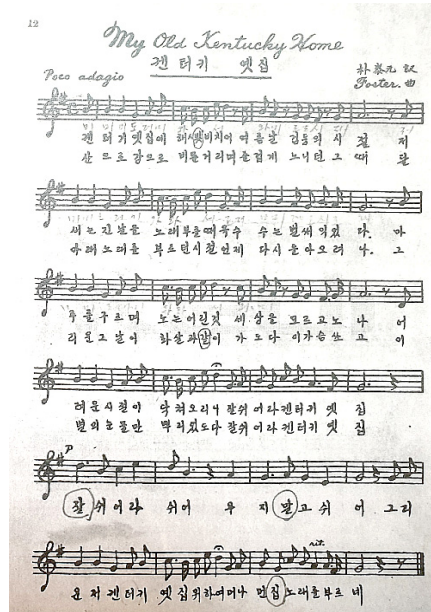
『中等 音樂教科書』(대상)가 해방공간 발행으로 추정되는 근거로는 첫째, 수록곡 35곡 가운데에 무려 26곡이 해방공간 발행된 중등음악교과서 제1호인 『臨時中等音樂敎本』과 중복된다는 점, 둘째, 악전 제6장 음계 부분의 외국에서 사용하는 명칭들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를 ‘조(朝)’라 일컬었는데 이는 ‘조선(朝鮮)’의 ‘조(朝)’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발행된 교과서로 추정되는 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Lee, 2019, p.325).

『音樂敎本』(대진)의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행처가 학교인지 출판사인지를 추측하기 어려운 데 반하여, 『中等 音樂教科書』(대상)의 발행처는 大邱文藝出版社로 명시되어 있다. 이 출판사는 이 교과서 외에도 大邱公立中學校(당시 교명)의 『中等 音樂教科書』(1947. 9. 4. 발행)를 출판한 것으로 볼 때, 여러 종의 음악교과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악보

두 교과서 수록 악보의 사보자를 음악 지식을 갖춘 이들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유명 음악가명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음악용어의 오기, 기본 지식의 부재로 인한 오사 등이 많이 발견된다. 두 교과서 간 중복곡은, 해방 후 첫 중등 음악교과서이자 이후의 중등 음악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던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 악보를 모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사 과정에서도 오기, 오사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보자가 음악에 문외한일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II장 [Figure 2]의 『音樂敎本』(대진)과 『中等 音樂教科書』(대상)에 수록된 ‘켄터키 옛집’ 악보들을, 『臨時中等音樂敎本』(1946)의 수록 악보와 비교해보면, 사보상 오기는 있으나,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中等 音樂教科書』(대상)의 경우는 글씨체까지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3] <My old Kentucky home> in『Temporary edition of music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臨時中等音樂敎本)

그러나 제목, 빠르기말, 역사자명, 노랫말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same song <My old Kentucky home>, edited in『Music textbook』(Daegun secondary school), with『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Daegu public commercial secondary school), and『Temporary edition of music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	『Temporary edition of music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Title of the song	켄터키 옛집	컨터키 옛집	켄터키 옛집
Tempo marking	poco adagio	poco adagio	poco adagio
Translator of words	朴泰遠	朴泰元	朴泰元
Words of the song	햇빛	해入빛	해入빛

『臨時中等音樂敎本』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를 비교하면, 제목 외에는 빠르기말, 역사자명, 노랫말이 동일하다. 제목에서 ‘켄’이 ‘권’이 된 것은 악보 모사 중에 일어난 ‘오사’로 여겨진다.

반면에, 『臨時中等音樂敎本』과 『音樂敎本』(대진)을 비교하면, 제목은 동일하나, 빠르기말, 역사자명, 노랫말에서 차이를 보인다. 빠르기말의 경우는 악보 모사 과정에서의 ‘오사’로 볼 수 있으나, 역사자의 한자명이 다르거나 맞춤법이 다른 것은 ‘오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 악보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편저자가 역사자명과 맞춤법을 수정하였을 가능성, 둘째,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곡을 차용한 ‘또 다른 교과서’의 수록곡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편저 과정에서 『臨時中等音樂敎本』 수록 악보의 역사자명과 맞춤법을 수정한 또 다른 교과서를, 『音樂敎本』(대진)의 편저 과정에서 차용 및 모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편저자 스스로 역사자명을 수정하고²⁴⁾, 수정된 맞춤법²⁵⁾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편저자의 역량에 따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편저자의 역량이 요구될 필요가 없다.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곡들이 차용되어 수록된 교과서들 가운데에서 ‘사이스’ 폐지 조항이 반영, 적용된 교과서를 또 차용하여 편저하였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다른 교과서를 차용하여 짜깁기하고 악보를 모사하여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더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내는 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똑같은 방식을 거쳐 또 다른 교과서를 내는 일은, 해방공간 음악교육 상황에서 적지 않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사보자는 대구 문예출판사에 고용된 필경사로 추정된다. 추정의 근거는, 같은 출판사에서 펴낸 大邱公立中學校 『中等 音樂敎科書』가 글씨체와 사보 스타일 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점을 지닌다는 데에 있다 (Lee, 2019, p.326).

복수의 음악교과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대구 문예출판사를 음악전문 출판사로 보기에는 악보 사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해방공간은 우리나라 음악전문 출판사가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음악교과서를 음악서적 전문 출판사가 아닌 일반 출판사에서 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므로 악보 사보에 문제를 드러내는 교과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24) 역사자의 한자명은 『臨時中等音樂敎本』에 있는대로 朴泰元(1897~1921, 성악)이 맞다. 『音樂敎本』(대진)의 朴泰遠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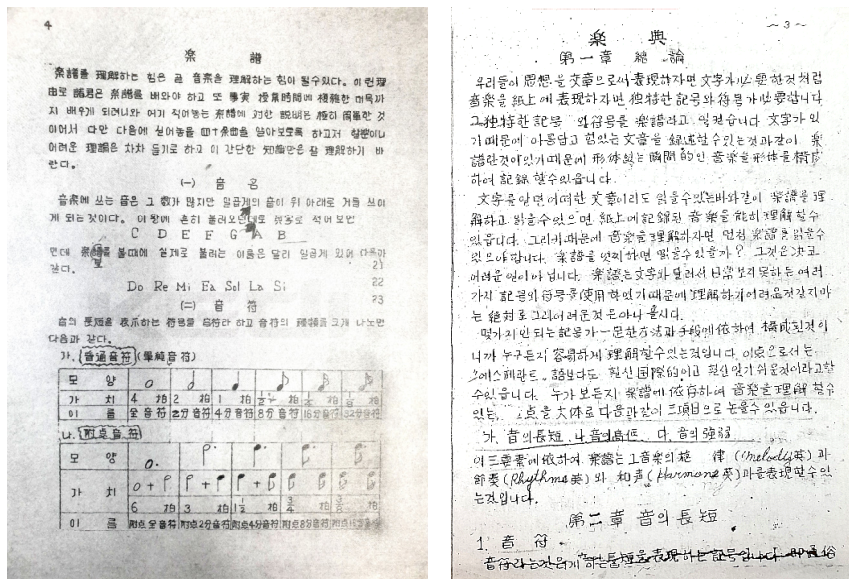
25) 1946년의 한글맞춤법 제3차 수정에서 ‘사이스’이 폐지되었다. 이후에 발행되는 검인정 교과서들은 이 수정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여야 했다.

4. 구성

『音樂敎本』(대건)의 경우, p.4의 '樂譜'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한 쪽이 실려 있음을 II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p.9 '애국가'부터 악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p.5~8까지 원문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수록 악보 이전에 다섯 쪽 분량의 간단한 악전이, 이어서 수록곡 악보가 실려 있는 구성으로 보인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또한, 수록 악보 이전에 p.3~18까지 16쪽 분량의 '악전'이, 이어서 수록곡 악보가 실려 있는 구성이다. 『音樂敎本』(대건)과는 달리 '악전'이라는 제목하에 각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다.²⁶⁾

『音樂敎本』(대건)에 누락쪽이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두 교과서 공히 수록곡 악보 이전에 악전 또는 악보 읽는 방법 정도의 간단한 악전 내용, 그리고 그다음부터 수록곡 악보가 이어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를 살펴보면, 이 두 교과서처럼 악전과 수록곡 악보가 분리되어 배치되는 경우와, 수록곡 악보들 사이 사이에 악전 내용이 한두 쪽씩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교과서는 전자에 해당한다.



[Figure 4] Musical grammar(樂典)『Music textbook』(left, on page 4 of the book) and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on page 3 of the book)

26) 16쪽 분량이면 전체 52쪽 중 1/3에 가까운 비중이다. 편저자가 악전 교육을 중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

두 교과서는 악전과 가창곡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악, 감상, 창작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들 가운데에서 기악, 창작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감상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는 교과서가 있긴 하나²⁷⁾, 대부분의 교과서는 가창곡만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악전과 가창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교과서는 후자에 해당한다.

수록곡 구성을 살펴보면, 『音樂敎本』(대진)의 경우 전체 42곡이며, 이 가운데 외국곡이 24곡, 한국곡이 18곡이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경우, 전체 35곡으로, 이 가운데 외국곡은 23곡, 한국곡은 11곡, 국적미상곡 1곡(<피콜레>)이다. 전체 곡 수 중 외국곡과 한국곡의 비중을 보면, 『音樂敎本』(대진)의 경우 외국곡이 4/7를 차지하며,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경우 외국곡이 3/5 이상을 차지하므로, 두 교과서에 있어서 외국곡의 비중이 한국곡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교과서 간 중복곡은 21곡에 이른다. 『音樂敎本』(대진)의 경우 총 42곡이므로 교과서 수록곡의 1/2에 달하는 것이고,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경우 총 35곡이므로 3/5에 달하는 것이다. 중복곡이 두 교과서에서 공히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두 교과서에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곡이 대거 차용되었다는 공통점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音樂敎本』(대진)의 경우 총 42곡 중 28곡(2/3)이,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경우 총 35곡 가운데 26곡(약 4/5)이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곡이다. 두 교과서 간 중복곡 21곡 가운데 한 곡을 빼 20곡이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곡이다.

중복곡 21곡 중 외국곡이 12곡, 한국곡 8곡, 미상 1곡(<피콜레>)으로, 외국곡이 한국곡보다 4곡 많으며, 외국곡 가운데에는 미국(영-미 포함)곡이 3곡, 오스트리아(슈벨트)곡 3곡, 이탈리아곡 3곡, 독일곡 2곡, 슬로바키아곡 1곡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영-미 포함),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곡이 공히 3곡으로 가장 많고, 독일곡이 그다음이다. 가장 많은 수록곡을 지닌 작곡가는 슈벨트(3곡)와 홍난파(3곡)이며, 그다음이 박태준(2곡)이다. 또 가장 많은 수록곡을 지닌 작사자는 이은상(5곡)이다.

『音樂敎本』(대진)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간 중복곡의 악보를 비교해보면, 악보가 거의 유사하긴 하나 차이점도 다양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 차이를,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곡과 함께 비교하였다.

곡목과 곡순서는 『音樂敎本』(대진) 기준으로 하였다.

27) 예를 들어, 나운영의 『중등음악』 1, 2, 3(국제음악문화사 발행)에는 감상곡과 감상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 애국가 (한국곡)

- 『音樂敎本』(대진) : 하나님. 3절 없음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하느님. 3절 없음
- 『臨時中等音樂敎本』 : 하느님. 3절 없음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 노랫말 중 ‘하느님’/‘하나님’ 상이

(2) 黎明의 노래 (한국곡)

- 『音樂敎本』(대진) : 화암 시, 이진우 곡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화암 시, 이진우 작곡
- 『臨時中等音樂敎本』 : 화암 시, 이진우 작곡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 작사/시 - 작곡/곡 표현 상이.

(3) 켄터키 옛집 (외국곡(미국))

- 『音樂敎本』(대진) : 1) 켄터키옛집 2) 朴泰遠 역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켄터키옛집 2) 朴泰元 역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켄터키옛집 2) 朴泰元 역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 제목은 ‘켄터키 옛집’이 맞음. 역사자의 한자명은 朴泰元이 맞음.

(4) 微風 (한국곡)

- 『音樂敎本』(대진) : 1) m.4 윗성부 음 A 2) m.14 두 번째 음 F#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m.4 윗성부 음 F# 2) m.14 두 번째 음 E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m.4 윗성부 음 F# 2) m.14 두 번째 음 F#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 m.4과 윗성부 음은 F#이, m.14 두 번째 음은 F# 이 맞음.

(5) 鳳仙花 (한국곡)

- 『音樂敎本』(대진) : 1) 김형준 시, 흥난파 곡 2) 제목 및 노랫말 ‘봉숭아’ 3) 洪蘭波의 ‘파’ 한자 다름(틀림)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김형준 작사, 흥난파 작곡 2) 제목 및 노랫말 ‘봉선화’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김형준 작사, 흥난파 작곡 2) 제목 및 노랫말 ‘봉숭아’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 제목 다름. 작곡자의 한자명은 洪蘭波가 맞음. 작사/시 - 작곡/곡 표현 상이

(6) 成佛寺의 밤 (한국곡)

- 『音樂敎本』(대진) : 1) 이은상 시, 홍난파 곡 2) 홍난파의 '파'한자 다름(틀림) 3) m.11 두 번째 음 E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이은상 작사, 홍난파 작곡 2) m.11 두 번째 음 D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이은상 작사, 홍난파 작곡 2) m.11 두 번째 음 D
- 비고 : 악보 거의 동일. 작곡자의 한자명은 洪蘭坡가 맞음.
- 작사/시 - 작곡/곡 표현 상이

(7) 麻衣太子 (한국곡)

- 『音樂敎本』(대진) : 1) 이은상 시, 안기영 곡 2) m.17의 세 번째 음표 D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이은상 작사, 안기영 작곡 2) m.4 의 세 번째 음표 오류로 그 마디만 5/4 3) m.17의 세 번째 음표 E(맞음)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이은상 작사, 안기영 작곡 2) m.17의 세 번째 음표 E
- 비고 : 악보 거의 동일. 작사/시 - 작곡/곡 표현 상이

(8) 歡喜의 頌歌 (외국곡(독일))

- 『音樂敎本』(대진) : 1) Alla Marcia 2) Beetheven 3) 봄비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Alla Maicia 2) Beethoven 3) 봄스비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Alla Marcia 2) Beetheven 3) 봄스비
- 비고 : 악보 거의 동일

(9) 鴉鴉새 (미상)

- 『音樂敎本』(대진) : 단성부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2성부
- 『臨時中等音樂敎本』 : 4성부
- 비고 : 『音樂敎本』과 『中等音樂敎科書』악보는, 원래 다성부였던 것을 단성부로 편곡한 것으로 보임(아랫성부가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악보 거의 동일).

(10) 旅愁 (외국곡(미국))

- 『音樂敎本』(대진) : T. F. Ordway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J. P. Ordway
- 『臨時中等音樂敎本』 : J. F. Ordway
- 비고 : 악보 거의 동일. J. P. Ordway가 맞음. (원곡 'Dreaming of Home and Mother')

(11) 菩提樹 (외국곡(오스트리아))

- 『音樂敎本』(대진) : 1) 역사자명 없음 2) 단성부 3) m.17의 첫째 음과 둘째 음 둘 다 8분음표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남궁요설 역사 2) 4성부 3) m.17의 첫째 음과 둘째 음은 4분음표와 8분음표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남궁요설 역사 2) 4성부 3) m.17의 첫째 음과 둘째 음은 4분음표와 8분음표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

(12) 빠꾸기 (외국곡(슬로바키아))

- 『音樂敎本』(대진) : 1) Slovakian 2) '장담 마쳐'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Slovakian 2) '장단 마쳐'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Slovakian 2) '장단 마쳐'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

(13) 즐거운 나의 집 (외국곡(영국-미국))

- 『音樂敎本』(대진) : 金在富 역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金在寅 역사
- 『臨時中等音樂敎本』 : 金在寅 역사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 역사자 한자명은 金在寅이 맞음.

(14) 로렐라이 (외국곡(독일))

- 『音樂敎本』(대진) : m.13 첫째, 둘째, 셋째 음은 G, A, G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m.13 첫째, 둘째, 셋째 음은 D, E, D(틀림)
- 『臨時中等音樂敎本』 : m.13 첫째, 둘째, 셋째 음은 G, A, G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 m.13 첫째, 둘째, 셋째 음은 G, A, G가 맞음.

(15) 金剛山에 살으리랏다 (한국곡)

- 『音樂敎本』(대진) : 1) 이은상 작O 2) 제목 '금강산에 살으리랏다'(틀림) 3) 노랫말 '사르리랏다', '있을진데', '호이나마', '하라저'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이은상 사 2) 제목 '금강에 살으리랏다' 3) 노랫말 '살으리랏다', '있을찐데', '호이나마', '하과저'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이은상 작사 2) 제목 '금강에 살으리랏다' 3) 노랫말 '살'

으리랏다', '있을찐대', '혼이나마', '하과저'

- 비고 : 악보 거의 동일. 제목, 노랫말 상이. 작사/시 - 작곡/곡 표현 상이

(16) 思友 (한국곡)

- 『音樂敎本』(대진) : 1) 이은상 시, 박태준 곡 2) m.20의 두 번째 음표는 8분음표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 2) m.20의 두 번째 음표가 4분음표, 그리고 마디 끝에 8분 쉼표 빠져 있음(오사)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 2) m.20의 두 번째 음표는 8분음표
- 비고 : 악보 거의 동일하나, m.20 상이. 작사/시 - 작곡/곡 표현 상이

(17) 자장가 (외국곡(오스트리아))

- 『音樂敎本』(대진) : m.6의 세 번째 음표가 4분음표(오사)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m.6의 세 번째 음표가 8분음표
- 『臨時中等音樂敎本』 : m.6의 세 번째 음표가 8분음표
- 비고 : 악보 거의 동일하나, m.6 상이.

(18) 산타루치아 (외국곡(이탈리아))

- 『音樂敎本』(대진) : 1) m.6의 세 번째 음이 G#(틀림) 2) m.12의 노랫말 '어리니'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m.6의 세 번째 음 G앞에 제자리표가 있음. 2) m.12의 노랫말 '어리어'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m.6의 세 번째 음 G앞에 제자리표가 있음. 2) m.12의 노랫말 '어리어'
- 비고 : 악보 거의 동일하나, m.6 상이. m.12 노랫말 상이.

(19) 오-소래 미오 (외국곡(이탈리아))

- 『音樂敎本』(대진) : 1) 제목 '오-소래 미오' 2) 노랫말 '오 맑은 햇빛' 3) m.4의 둘째 음 D 4) m.26의 둘째 음 G(틀림. Ab이 맞음) 5) 필요한 붙임줄이 많이 빠져 있음.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제목 '오, 나의 태양' 2) 노랫말 '오 맑은 해빛' 3) m.4의 둘째 음 Eb(틀림) 음 Eb(틀림) 4) m.26의 둘째 음 G(틀림. Ab이 맞음)
- 『臨時中等音樂敎本』 : 1) 제목 '오, 나의 태양' 2) 노랫말 '오 맑은 해빛' 3) m.4의 둘째 음 D 4) m.26의 둘째 음 Ab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하나, m.4와 m.26이 상이하며, 붙임줄 등의 기호 상이. 제목, 노랫말 상이.

(20) 월계꽃 (외국곡(오스트리아))

- 『音樂敎本』(대진) : m.8의 첫째 음 B에 제자리표, m.10의 둘째 음 B에 제자리표가 있어야 함.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m.8의 첫째 음 B에 제자리표 있음. m.10의 둘째 음 B에 제자리표 있음.
- 『臨時中等音樂敎本』 : m.8의 첫째 음 B에 제자리표 있음. m.10의 둘째 음 B에 제자리표 있음.
- 비교 : 악보 거의 동일하나, m.8과 m.10 상이

(21) 도라오라 쏘렌토에 (외국곡(이탈리아))

- 『音樂敎本』(대진) : 1) 제목 '도라오라 쏘렌토에' (수록 악보에는 '쏘렌토로') 2) 작곡자명 E. de Curtis 3) 첫째 단 조표 없음 4) 맨 마지막 마디는 두 마디로 나눠야 하며, 끝 음 뒤에 4분 쉼표 추가해야 함.
-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 1) 제목 '도라오라 쏘렌토로' 2) 작곡자명 D. Curtis 3) 두 번째 단 조표에 플랫과 샹이 섞여 있음 4) m.3의 세 번째 다섯 번째 음은 Bb으로 고쳐야 함. 5) 셋째 단 '옛날과 변함 없'까지를 두 마디로 나누어 놓았는데, 한 마디로 합쳐야 함. 6) 5)도 마찬가지지만, 한 마디를 임의대로 둘로 나누어 그린 곳이 많음. 7) 넷째 단부터 일곱째 단까지 음 또는 노랫말을 빼기도 하고, 음표를 잘 못 적기도 하며, 또 음표 밑에 노랫말을 잘못 적는 등 다양한 사보 오류가 나타난다.
- 『臨時中等音樂敎本』 : 수록곡 중에 없음
- 비교 : 두 악보가 전혀 다름. 둘 다 오류 많은 사보

『音樂敎本』(대진)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그리고 이 두 교과서를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악보와 비교하여 발견되는 차이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모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사(誤寫)나 실수들로 여겨진다. 음악 지식과 사보 능력이 부족한 사보자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音樂敎本』(대진)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사보자가 『臨時中等音樂敎本』 수록 악보를 직접 모사했거나, 또는 『臨時中等音樂敎本』을 모사한 또 다른 교과서를 모사했다는 사실을 악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편성까지 그대로 모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가운데에는 다성부를 단성부로 편곡한 것으로 보이는 곡(<피콜새>)도 있다.

제목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금강에 살으리랏다> / <금강산에 살으리랏다>), 이 또한 모사 과정에서의 실수로 추측된다.

작곡자, 역사자의 한자명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모사 과정에서의 실수로 여겨진다.²⁸⁾

그런데, 『臨時中等音樂敎本』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에서는 '作詞-作曲'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 데 반하여, 『音樂敎本』(대진)에서는 '詩-曲'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것이 발견된다. '작사'와 '시', 그리고 '작곡'과 '곡'은 다른 개념이다.²⁹⁾ 『音樂敎本』(대진) 편저자의 주관에 따라 '시-곡'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편저 과정에서 '시-곡'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臨時中等音樂敎本』이 아닌 또 다른 교과서의 수록곡을 차용하면서 이 표현까지 가져온 것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5. 노랫말

두 교과서 간 중복곡의 노랫말 비교를 통하여, 두 교과서가 서로 조금 다른 한글맞춤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946년의 <한글맞춤법 제3차 수정>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은 '사이스' 표기 폐지의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이다. '사이스' 표기 폐지가 『音樂敎本』(대진)에는 적용되었고,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경우,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록곡 전체 35곡에서 26곡이 『臨時中等音樂敎本』의 수록곡이며, 이 26곡의 악보가 『中等 音樂敎科書』에 거의 그대로 모사되었는데, 이 때문에 '사이스' 표기가 발견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³⁰⁾³¹⁾ 그러나 이 교과서의 발행 시기가 한글맞춤법 제3차 수정 이전인지 이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수정 이전 발행이라서 '사이스'를 그대로 둔 것인지, 아니면 수정 이후 발행임에도 모사에 급급하여 또는 맞춤법 수정 내용 적용의 필

28) 다른 중등 음악교과서에서도 한자명뿐 아니라 한글명도 틀리게 표기된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29)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겠다.

30) '사이스'은 1946년 한글맞춤법 제3차 수정 때에 폐지되었다. 『臨時中等音樂敎本』은 1946년 5월 1일에 발행되었는데, 한글맞춤법 제 3차 수정은 1946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는 '사이스' 사용되어 있다.

31) <歡喜의 頌歌>를 예로 들어, 교과서간 '사이스' 표기로 인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臨時中等音樂敎本』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1절에 '봄스비'로 표기된 것이, 『音樂敎本』(대진)에는 '봄비'로 되어 있다. '봄스비'에서 '사이스'를 탈락시켜 '봄비'로 표기하였다.

요를 느끼지 못하여 그대로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音樂敎本』(대건)의 노랫말에는 ‘사이스’ 표기가 발견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교과서 편저자가 모사 과정에서 ‘사이스’ 페이지를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臨時中等音樂敎本』을 차용하면서 ‘사이스’ 페이지를 적용한, 또 다른 교과서의 수록 악보를 모사했기 때문인지는 알기 어렵다.

노랫말 간 차이점이 ‘표기법’이 아닌, ‘의미’인 경우도 있다. 즉 어느 부분의 노랫말이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의 노랫말은 『臨時中等音樂敎本』과 동일하고, 다른 의미의 단어로 교체된 것이 없다. 그러나 『臨時中等音樂敎本』이 아닌, 『臨時中等音樂敎本』을 차용한 또 다른 교과서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音樂敎本』(대건)의 경우, 『中等 音樂敎科書』(대상) 및 『臨時中等音樂敎本』의 노랫말과는 다른 노랫말로 된 부분이 발견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音樂敎本』(대건)의 〈애국가〉에서 노랫말 ‘하나님’은, 『臨時中等音樂敎本』에서 ‘하느님’이었다.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 대부분의 〈애국가〉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音樂敎本』(대건)에서는 ‘하나님’이다.³²⁾

〈아침해 고을시고〉 3절의 경우에는, 『音樂敎本』(대건)에서 ‘조선의 일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臨時中等音樂敎本』에서는 ‘새날의 일꾼’이었으며, 그리고 〈건국의 노래〉 3절의 ‘자유와 평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臨時中等音樂敎本』에서 ‘자유와 평화’였다. ‘새날’을 ‘조선’으로, ‘평화’를 ‘평등’으로 교체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音樂敎本』(대건)과 『中等 音樂敎科書』(대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해방공간 비점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의 양상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 교과서의 비교 분석 결과, 편저자명이 명기되지 않은 점, 인쇄용지로 마분지가

32) 그 이유가 대건초급중학교가 가톨릭계 학교라는 데에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1954년 발행된 『한국 가톨릭 지도서』에는 “천주를 ‘천=天’, ‘하느님’이라 부르기를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1954년 이전까지 신도들 사이에서 천주를 ‘천’이나 ‘하느님’이라 부르는 일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해방공간 시기에도 ‘하느님’이라 부르는 신도가 많아 이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가톨릭계 학교인 대건초급중학교의 교과서 수록곡 〈애국가〉에서 ‘하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하느님’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사용된 점, 악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는 점, 수록곡 이전에 악전이 배치된 점, 수록곡 중 한국곡보다 외국곡의 비중이 큰 점, 다른 교과서들의 수록곡 차용 및 짜깁기적 양상을 드러내는 점 등의 공통점이 발견되었으며, 반면 인쇄 방식(등사/옵셋), 발행처(미상(학교 추정)/출판사), 맞춤법 등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하여 이 두 종의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는 편저 방식, 인쇄 발행 관련 사항, 사보 수준, 구성 등에서 유사점도 보이지만, 교과서 제작 예산, 편저자의 역량 또는 교육상 주안점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드러냄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 두 권에서 발견된 양상과 특징이 해방공간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 전체의 양상과 특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단편적으로나마 해방공간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는 데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현재의 음악교육적 환경에 익숙한 우리의 시각으로 해방공간의, 검인정도 아닌 비검인정 음악교과서를 바라보면, 이 교과서들은 어쩌면 초라한 외형을 지닌 조악한 짜깁기의 결과물, 많은 문제를 내포한 악보들의 묶음, 수준 미달의 잉터리 임시 교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과서의 이러한 양상은 당시의 어려운 국가 사회·경제적 상황, 그에 따른 열악한 교육 환경, 해당 학교의 교과서 제작 예산, 시기적·지역적 인쇄 및 발행 여건과 출판계 상황, 편저자의 역량 등 여러 가지 조건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교과서는 이러한 상황과 조건들의 종합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교과서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재의 음악교육적 상황에 비추어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그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선부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초라한 잉터리 교재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했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는 그 교과서들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였을 수 있고, 또 어쩌면 당시 그 지역에서 제작 가능했던 최선의 결과물이었을 수 있다. 해방 후 음악교육적 여건이 총체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을 하고자 했던 학교들의 노력, 그리고 음악 교사들의 열정이 담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비검인정 음악교과서가 비록 합법적, 공식적 교과서는 아니었어도 교육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필요성 및 가치 면에서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육과 중등 음악교과서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검인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비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고찰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고찰은 개별 교과서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 연구들이 쌓여야

비로소 비검인정 교과서의 일반적 양상과 특징이 도출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해방공간 비검인정 중등 음악교과서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며, 더불어 해방공간 중등 음악교과서 전체에 대한 온전한 평가도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자의 지식이 부족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던 점이 아쉽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추정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고 규명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References

- Anonymous. *Music textbook*. Daegu. (estimated to have been published by Daegun Secondary School in 1947).
- Anonymous.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 Daegu: MoonYeh Publishing Company. (estimated to have been published by Daegu public commercial secondary school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 Chung, T. S. (1992). *Resource book of 'history of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U. S. military government'(I)*. Seoul: Hong-ji-won Publish Company.
- Geh, C. S. (1946). *Song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Seoul: Church Music Institute(教會音樂硏究會)
- Go, S. H. (2000). Notes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music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Music Criticism*, 11, 5-22.
- Heo, G. (2004).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authorized textbooks*. Seoul: Iljinsa.
- Heo, Gang., Kwak, S. M., Kim, Y. M., Jung, T. B., Ham, S. G., Han, M. H., Lee, K. H., & Lee, J. G. (2000-2001).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I). *The Report of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2000-4*. Seoul: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Heo, J. Y. (2002).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1945 ~ 1955). *Gyoyug Han-Geul*, 16·17, 59-90.

- Kim, G. B. (2001). *The research of music education during the liberation-period*. Master thesis, Mokwon University.
- Kim, J. M. (2002). *A study on the curriculum and textbook of musical education during the era of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1945~1948)*.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rean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the Arts. (2004). *The series of research work(2003). 'Oral recording o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arts in Korea', 07 Yong-koo Pak 1914~*. Seoul: Th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1987).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s 40-year history*. Seoul: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 Kwon, D. W. (2004). 50 years of Korean school music education: Retrospect and prospec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7(0), 27-63.
- Kwon, H. K. (2014). Research on the music educatio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53, 5-36.
- _____ (2016). Research on music education material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 Focusing on the third volume of th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for boys and girls -. *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57, 109-144.
- La, U. Y. (1949). *Music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1*. Seoul: Kookje-Music-Moonhwas(國際音樂文化社)
- _____ (1948). *Music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2*. Seoul: Kookje-Music-Moonhwas(國際音樂文化社)
- _____ (1948). *Music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3*. Seoul: Kookje-Music-Moonhwas(國際音樂文化社)
- Lee, Y. R. (2019). An introduction to 『Secondary school music textbook』 published in Daegu. *The Modern Bibliography Review*, 19, 323-334.
- Moon, K. S. (2014). An investigation on Korean music education dur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1945~1948.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3), 21-46.

- Pak, B. B. (1982). *The textbooks during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the earlier period. The History of Textbooks in Korea.*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Son, T. R. (1996). *A historical study of western music in Daegu.* Daegu: Dae-il Publish Company.
- The Compilation Commission of Music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1946). *Temporary edition of music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Seoul: Kookje-Music-Moonhwasa(國際音樂文化社)
-
- (1948). *Music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Seoul: Keum-ryong Publish Company.
- The Korean Language Society(Joseoneo Hakhoe). (1940). *Revised Korean spelling system unification plan.* Kyungseong: The Korean Language Society(Joseoneo Hakhoe).
-
- (1946). *Revised Korean spelling system unification plan.* Seoul: The Korean Language Society(Joseoneo Hakhoe).
- The Korean Language Society(Hangeul Hakhoe). (1971). *The fifty-year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Hangeul Hakhoe).* Seoul: Hangeul Society.

Received: 29 February 2020, Reviewed (Revised): 29 March (5 April) 2020

Accepted: 14 April 2020, Published: 31 May 2020

Yooro Lee: E-mail: euroleee@snu.ac.kr

Student Researcher(Ph.D. degree co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